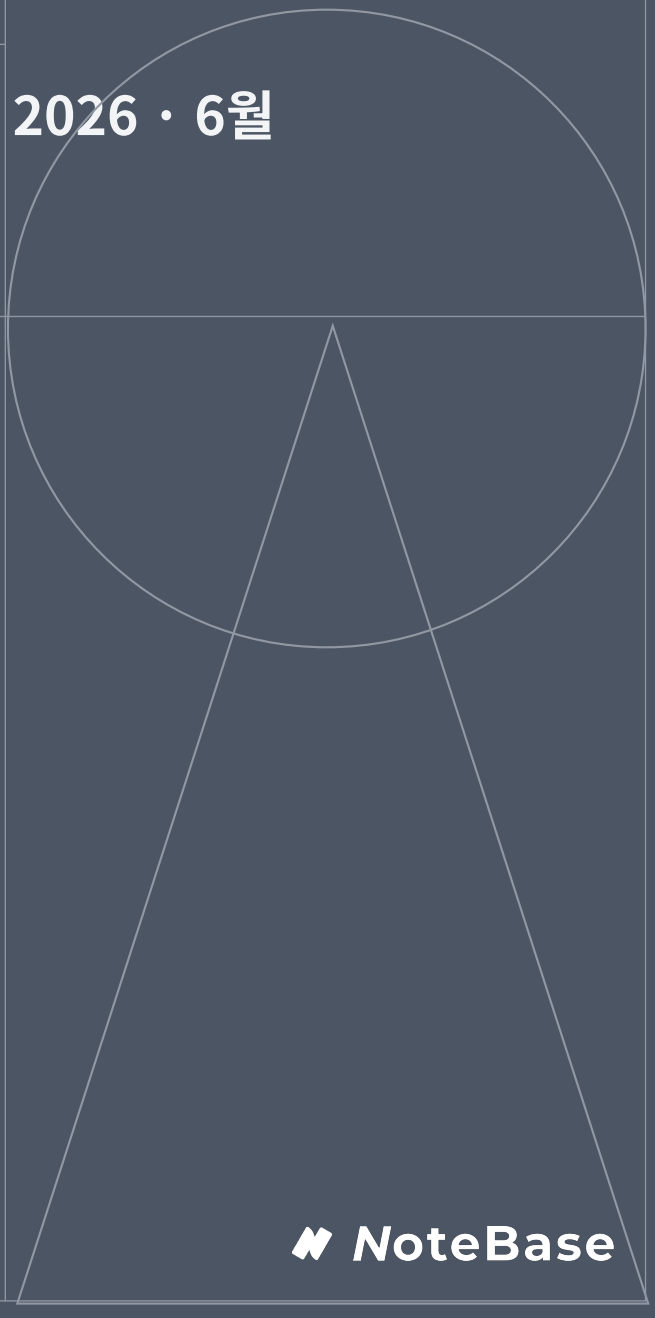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6 · 6월

문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 조사, 어미, '-하다' 등을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는다.
㉣ 영어 번역 투를 삼가야 한다.

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명을 선출되었다."를 ㉠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

②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를 ㉡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

③ "정부는 노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를 ㉢에 따라 "정부는 노인 복지 종합 계획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로 수정한다.

④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를 ㉣에 따라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로 수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계획 수립하여'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빠져 있다**. ㉢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로 고쳐야 조사와 서술어가 온전히 갖추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선출되었다'는 뽑힌 대상이 주어가 되는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30명'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아니라 **주격 조사 '이'**를 붙여야 한다. '국회의원 30명이 선출되었다'로 고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분명해지므로 ㉠에 맞는다.

② O: 원문은 시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논의했다는 뜻과, 시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 및 시민의 안전을 논의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로 고치면 관계자들은 **논의를 함께한 상대**이고 논의 대상은 시민의 안전임이 분명해진다. 중의성을 없앴으므로 ㉡에 맞는다.

③ X: 원문의 '수립'을 '수립하여'로 바꾸어 '-하다'와 연결 어미를 갖추었지만, '계획을'의 목적격 조사 '을'을 빼 버렸다. '계획'은 '수립하다'의 목적어이므로 **'계획을 수립하여'**로 써야 한다. '정부는 노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로 고쳐야 ㉢에 맞는다.

④ O: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행위의 주체를 '에 의해'로 나타낸 영어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이다. 이를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건국의 주체가 직접 드러나고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므로 ㉣에 맞는다.

NoteBase

문 2.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요>
○ 제목: 진공청소기 품질 문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 개선 방안
Ⅰ. 서론: 현황 및 문제점
1. 일부 제품에서 모터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흡입력 저하 등 품질 결함 발생
2. 온라인 고객지원 접수 및 처리 지연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Ⅱ. 진공청소기 품질 결함 및 소비자 불만의 원인
1. 해외 생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 제품 발생
2. _____
Ⅲ. 진공청소기 품질 결함 및 소비자 불만 문제해결 방안
Ⅳ. 결론: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① 동일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
② 고객지원센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 지연
③ 생산 단계 품질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
④ 소비자 민원 해소 및 제품 신뢰도 제고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빈칸은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고객지원센터의 인력 부족은 온라인 고객지원의 접수·처리를 늦춰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원인으로 연결된다.

공통 해설

개요의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빈칸이 속한 Ⅱ는 '진공청소기 품질 결함 및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다루므로, 빈칸에는 **문제가 발생한 까닭**이 들어가야 한다. Ⅰ에서 제시한 문제는 제품의 품질 결함과 온라인 고객지원의 접수·처리 지연이다. Ⅱ의 첫 항목이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므로, 둘째 항목에는 고객지원 지연과 관련된 원인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객지원센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 지연'은 **인력 부족 → 대응 지연 → 소비자 불만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므로 빈칸에 적합하다. 반면 '동일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와 '생산 단계 품질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조치이므로 Ⅲ의 '문제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소비자 민원 해소 및 제품 신뢰도 제고'는 문제해결을 통해 얻으려는 성과이므로 Ⅳ의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관계론적 접근'에 해당하는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객관적인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의 방식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이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해당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라는 과정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도 그것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 로봇은 동료들과 전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만난 감정 로봇은 가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어떤 이는 로봇에게 느끼는 감정은 로봇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감 행위에서 비롯되는 가짜 감정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 세기에 걸쳐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온 가축들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처럼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①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과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만든 도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인간과의 상호 작용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
④ 인공지능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관계론적 접근은 도덕적 지위가 인간과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계 맺기**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따라서 로봇의 도덕적 지위도 그것이 놓인 맥락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능과 의식의 유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판단하는 것은 로봇 자체의 속성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다. 글에서는 도덕적 지위가 객관적인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관계론적 접근에 맞게 판단하려면 **인간과 로봇이 맺는 관계**를 살펴야 한다.

② X: 인간이 만든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글의 관점과 어긋난다. 글은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로봇이 전우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보아야 한다.

③ O: 글은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그것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을 통해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군사 로봇은 전쟁터에서 전우가 되고, 감정 로봇은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예는 **맥락과 관계에 따른 판단**을 뒷받침한다.

④ X: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상이 가진 속성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므로, 글의 관계론적 접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은 고통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인간과 어떤 상호 작용과 관계를 맺는지**이다.

NoteBase

문 4. 논증이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희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영희는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영희가 모든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살인 범죄는 1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는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

③ 우리나라는 폭력 행사를 쉽게 하는 사회이다. 방송이나 영화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④ 지난해 한국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10%였으나 올해는 9%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올해 한국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과와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과일까지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나머지 과일에 대한 선호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과와 배는 과일의 일부일 뿐이다. 두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제만으로 영희가 모든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선지는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범위까지 결론을 확대하지 않는다**. 다만 영희가 다른 과일을 반드시 좋아한다는 뜻도 아니다.

② X: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에 살인 범죄가 16%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제 폐지가 강력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범죄 증가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을 검토해야 하며, 사형의 미집행과 제도 자체의 폐지도 구별해야 한다. 제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기간에 살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까지이다.

③ X: 방송이나 영화의 폭력적인 내용을 사회 현실의 반영이라고 설명하려면, 실제 사회가 폭력적이라는 점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지는 **입증해야 할 사회의 폭력성을 이미 전제**하여 매체의 내용을 해석한다. 방송·영화의 내용만으로 사회 전체의 폭력성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폭력 발생 실태 등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X: 간암 사망자 비율의 분모는 전체 사망자 수이므로, 비율이 10%에서 9%로 낮아져도 간암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율의 감소와 실제 인원수의 감소는 다르다**. 가령 전체 사망자가 지난해 1,000명, 올해 2,000명이었다면 간암 사망자는 각각 100명과 180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실제 인원수의 증감을 판단하려면 두 해의 전체 사망자 수도 알아야 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의 대화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자: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 및 유류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가능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 국장: 즉각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김 국장: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고, 판매처에서 이윤만 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를 직접 조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 사회자: 유류세 인하가 판매처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서 이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① ㉠에서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② ㉡에서 이 국장은 유류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김 국장은 소개된 방안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사회자는 언급된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추가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사회자는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과 유류비 상승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발언 순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에서 사회자는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과 유류비 상승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다. 따라서 토의 주제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가능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는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말일 뿐 **발언 순서를 지정한 말은 아니다**. 선지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에서 이 국장은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즉각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자고 제안한다. 유류비를 낮추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③ O: ㉢에서 김 국장은 유류세를 낮추어도 판매처가 소비자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고 이윤만 늘릴 수 있다는 **기존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를 직접 조절하자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④ O: ㉣에서 사회자는 김 국장이 지적한 판매처의 이윤 증가 문제를 받아, 유류세 인하가 판매처의 이윤으로만 이어지지 않게 할 방안이 있는지 이 국장에게 묻는다. 앞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의견을 특정 참여자에게 요청**하는 발언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의 관계는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단어를 가리키며 정도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정도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길다/짧다, 덥다/춥다' 등과 같은 형용사 무리이다. 다음으로,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합격하다/불합격하다' 등이다. 한편, 방향 반의어는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공간적 관계의 '위/아래', '오른쪽/왼쪽', 인간 관계의 '스승/제자', 이동의 '가다/오다' 등이다.

① '참/거짓'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상보 반의어이다.

② 정도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 모두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③ '쉽다/어렵다'의 경우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정도 반의어이다.

④ '입다/벗다'의 경우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어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입다/벗다'는 옷을 몸에 걸치고 벗어 내는 **동작의 방향이 대립**하는 말이다. '위/아래'처럼 공간적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에서 상보 반의어는 개념적 영역을 서로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누는 말이다. '참/거짓'은 참이면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면 참이 아닌 관계로, 지문의 기준에서 **중간 영역 없이 양분**되므로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② O: 지문의 첫 문장은 반의 관계를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단어의 관계로 설명하고 이를 세 유형으로 나눈다. 정도·상보·방향 반의어는 대립하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의미상의 대립**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③ O: '쉽다/어렵다'는 일의 난도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정도가 대립한다. 아주 쉽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보통이다'와 같은 **중간 정도가 가능**하므로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④ X: '입다/벗다'는 방향 반의어이지만, 옷을 몸에 걸치는 동작과 몸에서 벗어 내는 동작이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간적 관계'는 **동작의 방향이 대립하는 관계**로 고쳐야 한다. 지문에서 공간적 관계의 예로 제시한 것은 '위/아래', '오른쪽/왼쪽'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NoteBase

문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빛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빛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빛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해 왔다. 빛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 지나면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물리학자는 19세기 영국의 맥스웰이다.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전기학과 자기학을 집대성하여 전자기학을 완성하고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그에 따르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두 성분으로 갖는 전자기 파동이다. 이 둘은 서로 수직인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 가며 같은 방식으로 진동하고, 이 진동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맥스웰에 따르면 빛은 파동이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빛의 정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20세기 초, 빛에 관하여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속도의 상한선으로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 양자 물리학은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즉 빛 에너지는 최소 덩어리 단위로만 전달되는 입자라는 것이다.

이로써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은 20세기 들어서 빛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빛은 여러 현상으로 자신이 파동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 주지만, 정밀한 검출기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알갱이, 즉 입자의 형태로 나른다는 이중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한, 둘 다의 모습을 띤 이중적인 빛은 정말 '이상한' 존재이다.

① 19세기 때 빛이 우주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②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과학적 의의가 있다.

③ 20세기 전의 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④ 맥스웰은 빛의 성분을 분해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맥스웰은 빛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두 성분으로 갖는 전자기 파동**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빛의 성분을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글에 제시된 그의 견해와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빛의 속도가 우주에 존재하는 속도의 상한선이라는 내용을 **20세기 초의 인식 전환**과 연결해 설명한다. 19세기 맥스웰의 연구는 빛을 전자기 파동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속도의 상한선에 관한 사실이 19세기에 밝혀졌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X: 빛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물리학자는 **19세기 영국의 맥스웰**이다. 글에서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빛의 속도가 우주의 속도 상한선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킨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업적의 주체를 맥스웰로 고쳐야 한다.

③ X: 20세기 이전에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며, 맥스웰은 빛을 파동으로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는 이중성**이 드러나 논쟁이 종결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따라서 두 성질을 함께 인정한 시기를 20세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은 글의 설명과 다르다.

④ O: 둘째 문단에서 맥스웰은 빛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두 성분으로 갖는 전자기 파동**으로 보았다고 했다. 두 성분은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 서로를 유도하며 진동한다. 선지의 '성분을 분해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빛을 이루는 두 성분을 구분한 것으로, 이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빛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빛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빛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해 왔다. 빛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 지나면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물리학자는 19세기 영국의 맥스웰이다.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전기학과 자기학을 집대성하여 전자기학을 완성하고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그에 따르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두 성분으로 갖는 전자기 파동이다. 이 둘은 서로 수직인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 가며 같은 방식으로 진동하고, 이 진동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맥스웰에 따르면 빛은 파동이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빛의 정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20세기 초, 빛에 관하여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속도의 상한선으로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 양자 물리학은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즉 빛 에너지는 최소 덩어리 단위로만 전달되는 입자라는 것이다.

이로써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은 20세기 들어서 빛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빛은 여러 현상으로 자신이 파동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 주지만, 정밀한 검출기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알갱이, 즉 입자의 형태로 나른다는 이중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한, 둘 다의 모습을 띤 이중적인 빛은 정말 '이상한' 존재이다.

① 버스가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다.

② 비는 열흘이 지나도 그칠 줄을 몰랐다.

③ 그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다.

④ 계속되는 폭우로 영산강의 수위가 한계 수위를 지나 계속 불어났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지나면서'는 **시간이 흘러 경과한다**는 뜻이다. '열흘이 지나도'에서도 '지나다'는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로 쓰였다.

NoteBase

공통 해설

㉠의 '지나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문맥에서 **시간이 흘러 경과하다**라는 뜻이다. 빛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연구의 초점이 입자와 파동의 문제로 모였다는 의미이다. '열흘이 지나도' 역시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다른 표현들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강 다리를 지나고'는 버스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공간적 이동을 뜻한다.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변명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계 수위를 지나'는 물의 높이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들은 각각 장소의 통과, 의미의 한정, 기준의 초과를 나타내므로 ㉠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9.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이 있다. 종류도 많고, 종류가 같더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이 무척 복잡하다고 ㉠ 생각한다. 몬드리안은 세상의 그런 겉모습만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겉으로 ㉡ 노출된 것을 넘어 근원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몬드리안이 보기에 자연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를 따르는 세계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제각기 달라 보여도 사물들 안에는 보편적인 질서와 규칙이 있고, 질서와 규칙은 매우 단순한 원리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화가로서 표현해야 할 것은 복잡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파인먼은 제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그 근본 법칙은 단순하다며,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라고 말했다.

몬드리안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추상이 아니라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 준 화가가 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화가 마크 로스코이다. 로스코의 그림은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사각형이 주축이다. 물론 몬드리안이 애초부터 사각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물과 공간을 단순화해 표현하다 보니 수직선과 수평선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겹쳐져 ㉢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로스코는 아예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면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 구성이 대체로 두세 개의 사각형으로 귀결되곤 했다. 다만 로스코의 사각형은 엄격한 기하학적 사각형의 꼴을 이루고 있지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사각형이다. 형태 자체를 하나의 면으로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색채의 뉘앙스가 ㉣ 풍부히 살아나도록 하다 보니 어렴풋한 사각형 면들로 귀착되었다 하겠다.

① 몬드리안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사물들 안의 보편적인 규칙과 질서이다.

② 파인먼은 세계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그 근본 법칙도 단순하지 않다고 보았다.

③ 로스코의 그림에서 사각형이 주축이 된 이유는 그가 그림에 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④ 몬드리안과 로스코는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몬드리안은 복잡한 겉모습을 넘어 그 안에 숨어 있는 **보편적인 규칙과 질서**를 표현하려 했다. 사물과 공간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사각형은 이러한 표현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에서 몬드리안은 사물들 안에 보편적인 질서와 규칙이 있으며, 화가가 표현해야 할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표현하려 한 대상은 **사물의 겉모습을 넘어선 보편적인 규칙과 질서**이다.

② X: 첫 문단의 마지막에서 파인먼은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그 근본 법칙은 단순하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복잡함과 그 바탕에 있는 법칙의 단순함을 구별했으므로, '근본 법칙도 단순하지 않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반대이다.

③ X: 둘째 문단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만든 화가는 몬드리안이다. 로스코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면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으며, 형태를 단순화하여 색채의 뉘앙스를 살리는 과정에서 경계가 어렴풋한 사각형 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로스코의 사각형을 선의 사용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X: 둘째 문단의 '몬드리안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추상이 아니라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라는 표현은 두 화가의 추상 방식을 구별한다. **몬드리안은 기하학적인 추상**을, **로스코는 서정적인 색면 추상**을 보여 주었으므로, 두 사람을 모두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묶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0. 윗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이 있다. 종류도 많고, 종류가 같더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이 무척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몬드리안은 세상의 그런 겉모습만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겉으로 ㉡노출된 것을 넘어 근원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몬드리안이 보기에 자연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를 따르는 세계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제각기 달라 보여도 사물들 안에는 보편적인 질서와 규칙이 있고, 질서와 규칙은 매우 단순한 원리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화가로서 표현해야 할 것은 복잡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파인먼은 제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그 근본 법칙은 단순하다며,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라고 말했다.

몬드리안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추상이 아니라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 준 화가가 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화가 마크 로스코이다. 로스코의 그림은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사각형이 주축이다. 물론 몬드리안이 애초부터 사각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물과 공간을 단순화해 표현하다 보니 수직선과 수평선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겹쳐져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로스코는 아예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면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 구성이 대체로 두세 개의 사각형으로 귀결되곤 했다. 다만 로스코의 사각형은 엄격한 기하학적 사각형의 꼴을 이루고 있지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사각형이다. 형태 자체를 하나의 면으로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색채의 뉘앙스가 ㉣풍부히 살아나도록 하다 보니 어렴풋한 사각형 면들로 귀착되었다 하겠다.

① ㉠: 여긴다

② ㉡: 드러난

③ ㉢: 어지간한

④ ㉣: 풍성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양한 크기'는 **크기가 여러 가지로 서로 다름**을 뜻한다. '어지간한'은 정도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조금 더하다는 뜻이므로, 크기의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 '다양한'을 대신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생각한다'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여긴다'도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이므로, '세상이 무척 복잡하다고 여긴다'로 바꾸어도 **세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의미가 유지된다.

② O: ㉡의 '노출된'은 사물의 겉모습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드러난'도 가려져 있던 것이 겉으로 나타났다는 뜻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넘어 근원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다'로 바꾸어도 문맥에 맞는다. 겉모습과 그 안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형상의 대비가 유지된다.

③ X: ㉢의 '다양한'은 모양이나 종류 등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겹쳐져 생긴 사각형들의 **크기가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어지간한'은 정도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조금 더하다는 뜻이어서 크기의 다양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다양한 크기'는 '여러 가지 크기'로 바꿀 수 있다.

④ O: ㉣의 '풍부히'는 넉넉하고 많게라는 뜻이다. '풍성히'도 넉넉하고 많게라는 뜻이므로, '색채의 뉘앙스가 풍성히 살아나도록'으로 바꾸어도 **색채의 미묘한 느낌이 넉넉하고 다채롭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유지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배재학당에 다니던 주시경은 서재필이 창간한 『독닙(립)신문』의 회계사 겸 교정원으로 발탁되었다. 주시경은 신문의 교열을 맡았던 것을 계기로 국문 철자법 통일 방안을 연구했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만들었다. 국문동식회는 회원들끼리 새로운 철자법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이 모임의 궁극적 목적은 주시경의 국문 철자법을 확산시켜 어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1908년 국문 철자법의 보급과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로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다.

① 주시경은 『독닙(립)신문』 창간을 주도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원이 되었다.

② 국문동식회는 국어연구학회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③ 국어연구학회는 국문 철자법 확산을 위해 주시경이 배재학당 내에 설립한 학생 자치 모임이다.

④ 주시경은 신문 교열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문 철자법 통일 연구를 시작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글은 주시경이 신문 교열을 맡은 일이 **국문 철자법 통일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교열 업무와 철자법 연구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 『독닙(립)신문』을 창간한 인물은 **서재필**이다. 주시경은 이 신문의 회계사 겸 교정원으로 발탁되었다. 주시경이 창간을 주도했고 그 공로로 교정원이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X: 국문동식회는 **주시경의 국문 철자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새로운 철자법을 함께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국어연구학회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려고 국문동식회를 결성했다는 설명은 선후 관계를 뒤바꾼 것이다.

③ X: 국어연구학회는 1908년 **국문 철자법의 보급과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로 설립되었다. 배재학당에 다녔다는 설명은 주시경에 관한 정보이며, 국어연구학회가 배재학당 안에 설립된 학생 자치 모임이라는 근거는 글에 없다.

④ O: 글의 '신문의 교열을 맡았던 것을 계기로 국문 철자법 통일 방안을 연구했고'라는 부분이 근거이다. 이는 **신문 교열 업무가 철자법 통일 연구로 이어졌다**는 뜻이므로, 교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논증이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 논증의 타당성과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논증을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 좋다.
글을 쓸 때는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 등이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해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함을 입증하는 방식을 논증이라고 한다.

②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의 관계를 살펴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 효과를 평가한다.

③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을 배제하고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살피며 읽는다.

④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자신의 관점을 배제하고'는 글의 설명과 어긋난다.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 효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논증을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첫 문장은 논증을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선지는 이러한 논증의 의미를 바르게 옮겼다.

② O: 글은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을 논증의 요소로 제시한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면서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 효과**를 평가하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살피며 읽는다는 부분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자신의 관점을 배제하고'는 잘못되었다. 글에서는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 효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논증을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글의 논증을 평가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관점을 세우며 읽어야 한다.

④ O: 글의 마지막 문장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주장, 이유, 근거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해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는 윤동주와 이육사 두 시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글로 된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다는 점 외에도 평소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그들의 삶을 일관했다는 점, 일제에 체포되어 머나먼 이국의 감옥에서 순국하였던 점, 생전에는 시집을 내지 못하였다가 해방 이후에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고 시집의 형태로 자신의 시집을 발간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공통적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만으로 그들 작품에 나타난 저항 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민족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서의 한글로 된 시를 어떻게든 보존하며, 지켜나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은 그 의미가 결코 과장되어서도,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같은 저항시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나 내용상으로 이들의 시는 각기 특징적인 국면을 지니고 있다. 윤동주가 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영혼의 섬세함 내지 순결함과 그것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 현실 인식 및 희생정신을 강조했다면, 이육사는 유교적 가치 질서를 담은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호방함과 매운 절개를 추구하는 지사적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u>접점</u>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전면적인 위기의식과 그럼에도 그들 내면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었던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일 것이다. 그들이 모두 이 시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극적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문학사상 수준 높은 저항 시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① 현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문학적 기교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② 저항의 수단으로 한글보다는 이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민족의 현실을 알렸다.

③ 서구의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적 유교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려 노력하였다.

④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시인은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 '접점'은 서로 다른 작품 세계 속에서도 두 사람이 공유한 이러한 저항 정신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시인이 현실의 위기를 인식했고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다는 점은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문학적 기교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가리키는 공통점은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민족사에 대한 신뢰를 지켰다는 점이다.

② X: 글은 두 시인이 민족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한글로 된 시를 보존하고 지키려 했다**고 설명한다. '이국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표현은 이를 뒤바꾼 것이다. 두 사람이 이국의 감옥에서 순국했다는 사실은 시를 쓴 언어와 구별해야 한다.

③ X: 기독교적 세계관은 윤동주의 시적 특징이고, 유교적 가치 질서는 이육사의 시적 특징이다. 글은 이를 **두 시인의 차이**로 제시했으며, 두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민족사에 대한 신뢰를 공유했다는 것이 ㉠의 의미이다.

④ O: ㉠ 뒤에서는 두 시인의 접점을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전면적인 위기의식'과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로 설명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민족사에 대한 믿음이 함께 존재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족이 처한 위기 속에서도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빈칸에 들어갈 전제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전제] 건강에 좋은 모든 음식은 영양가가 높다.
[전제] _____
[결론] 그러므로 이 사과는 영양가가 높다.

① 이 사과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② 모든 사과는 영양가가 높지 않다.
③ 모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④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면 영양가가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모두 영양가가 높다'는 전제를 이 사과에 적용하려면, 이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음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이 사실이 주어지면 이 사과도 영양가가 높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음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건강에 좋은 모든 음식은 영양가가 높으므로, 그 범주에 속하는 이 사과 역시 영양가가 높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② X: 사과의 영양가가 높음을 부정하는 진술이므로, 이 사과의 영양가가 높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필요한 전제는 사과의 영양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이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이다.

③ X: 음식의 건강상 이로움을 부정할 뿐, 이 사과의 영양가가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주어진 전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의 영양가를 말하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영양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음식에 속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주어진 전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④ X: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관한 또 하나의 조건문이다. 음식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을 추가할 뿐, **이 사과를 그 음식의 범주에 연결하는 개별 사실은 제시하지 않는다**. 빈칸을 '이 사과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로 바꾸면, 주어진 일반 전제와 이 사과를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곰팡이는 다른 생물에 비해 약점이 많다. 광합성을 해서 먹을거리를 스스로 챙기지도 못하고, 운동성이 없으니 위험을 피해 도망칠 수도 없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에 비하면 빨리 자라지도 못한다. 다양한 미생물 사이에 혼자 뚝 떨어진다면 도태되기 딱 좋다.
(나) 각 단계의 화학 반응을 하는 데 효소 하나가 필요하고, 그 반응의 결과로 대사 물질 하나가 합성된다. 그 대사 물질이 다른 효소와 반응하여 또 다른 물질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 이어지면 최종 산물이 합성된다.
(다) 대사는 생물체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이용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대사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대사 물질이라고 한다. 곰팡이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는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친다.
(라) 그럼에도 이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극한 환경에 퍼져 나가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곰팡이의 생존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곰팡이가 수많은 약점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얻은 다양한 대사 능력 덕분이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다) - (나)
③ (다) - (나) - (라) - (가)
④ (다) - (라) - (나) - (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라)의 **'그럼에도'**는 (가)에서 제시한 곰팡이의 약점과 달리 곰팡이가 살아남았음을 보여 준다. 이어 생존 비결인 대사 능력을 설명하려면 대사의 뜻을 먼저 밝히고,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라) → (다) → (나)

(가): 곰팡이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운동성이 없으며 다른 미생물보다 빨리 자라지도 못한다는 약점을 제시한다. 곰팡이라는 대상을 소개하고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밝히므로 글의 첫머리에 놓인다.

(라): **'그럼에도'**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이끌며, '이들'은 (가)의 곰팡이를 가리킨다. 약점이 많은데도 곰팡이가 살아남았다는 내용이므로 (가) 뒤에 이어진다. 이어 그 생존 비결을 다양한 대사 능력에서 찾으며 설명의 초점을 대사로 옮긴다.

(다): (라)에서 생존 비결로 제시한 **대사 능력의 '대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대사와 대사 물질의 뜻을 밝힌 뒤, 곰팡이 세포의 대사는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친다는 내용으로 다음 설명의 바탕을 마련한다.

(나): **'각 단계의 화학 반응'**은 (다)의 마지막 문장에 나온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이어받는다. 각 단계에서 효소가 필요하고, 생성된 대사 물질이 다른 효소와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최종 산물이 합성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능'과 '지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지능(知能)과 지성(知性)을 좀 구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지 능력이죠. 그런데 지성은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해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겠죠.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이겠죠.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로 접근하면 우리가 또 한 발짝 달아나겠죠.

① 지능은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

②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집단 지능에 가깝다.

③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지성이다.

④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계적 처리 능력이 지성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데이터를 수집·분류하는 기계적 처리 능력을 '지성'으로 본 것이 잘못이다. 이 글에서 지성은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상황 속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에서는 지능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인지 능력**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지능이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는 이해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O: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다. 글쓴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이 인터넷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돌려준다는 점에서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본다. '집단 지능에 가깝다'는 설명은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O: 글쓴이는 지성이 어떤 상황에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④ X: 데이터를 수집·분류하는 기계적 처리 능력만을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글에서는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돌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으로 설명한다. 지성으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정보 처리에 더하여 **상황 속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 규정 중 ‘받침의 발음’에는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겹받침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여덟’의 경우 [여덜]로 발음하지만 ‘밟다’의 경우 [밥:따]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1음절 ‘닭’의 경우 [닥]으로 발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묽고’를 [물꼬]로 발음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① ‘밟는’을 발음할 경우, 겹받침 ‘ㅄ’은 [ㄹ]로 발음한다.

② ‘맑게’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ㄺ’은 [ㄱ]으로 발음한다.

③ ‘젊다’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ㄻ’은 [ㅁ]으로 발음한다.

④ ‘읊고’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ㄿ’은 [ㄹ]로 발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젊다'의 겹받침 'ㄻ'은 **자음 'ㄷ' 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 이는 지문에서 제시한 'ㄻ'의 발음 원칙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ㅄ'은 자음 앞에서 원칙적으로 [ㄹ]로 발음하지만, **'밟-'은 [밥]으로 발음하는 예외**이다. '밟는'에서는 남은 [ㅂ]이 뒤의 'ㄴ'에 동화되어 [ㅁ]으로 바뀌므로 실제 발음은 [밤:는]이다. 따라서 [ㄹ]로 발음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② X: '맑게'는 용언의 어간 '맑-'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가 붙은 말이다. 지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ㄱ]으로 발음한다는 설명은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겹받침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 '젊다'에서는 'ㄻ' 뒤에 자음 'ㄷ'이 오므로 **'ㄹ'이 탈락하고 [ㅁ]으로 발음**한다.

④ X: 겹받침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읊고'에서는 'ㄿ' 뒤에 자음 'ㄱ'이 오므로, [ㄹ]이 아니라 [ㅂ]으로 발음한다.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예외는 용언의 어간 말음 'ㄺ'에 적용되며 'ㄿ'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외모’가 아무리 타인에 의한 평가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척도가 된다면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완벽한 몸매’란 것이 존재한다면 몸을 다듬어 그런 몸매를 유지하면 분명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완벽한 몸매의 척도가 바뀌면 사라진다.
한 예로 3킬로그램 감량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까지 입지 못했던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긴 듯한 기분도 들 것이다. 그러나 집 밖으로 한걸음 내디디면 ‘나보다 더 마른 사람’, ‘나보다 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의 성공으로 생긴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나보다 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스타일만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란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것도 무리한 다이어트로 만든 것이라면 오래가기 어렵다.
타인이 내리는 ‘상대평가’만큼 불안정한 것은 없다. 이 불안정은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 나쁜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식으로 강박 관념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의혹과 불안감을 한없이 키워나간다.

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② 자신감의 근거를 가변적인 외부의 조건에 둘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다.
③ 부단한 자기 계발을 통해 타인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④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된다면 개인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외모의 기준이 바뀌거나 더 나은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외적 조건을 개선해 얻은 자신감도 쉽게 사라진다.
자신감을 **가변적인 외부 조건**에 의존할수록 타인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설명은, 상대평가가 불안을 키운다는 글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타인과 비교하여 얻는 우월감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지 않는다. 더 마르거나 스타일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사례를 통해, 비교에 의존한 자신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를 건강한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진술은 글의 논지를 강화하지 못한다.

② O: 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해 얻은 자신감은 더 나은 비교 대상을 만나면 사라지고, 타인의 나쁜 평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불안을 키운다. 이는 자신감의 근거가 외모나 상대적 우위처럼 변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면 **심리적 안정도 타인의 평가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선지는 외적 조건에 대한 의존과 불안의 관계를 설명하여 글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③ X: 글은 '나보다 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모두 사라질 수 없다고 하여, 외적 조건을 개선해도 비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타인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불안 해소의 유일한 길로 제시하는 것은 글의 논지와 반대이다. 글이 지적하는 문제는 자기 계발의 부족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 자신감을 의존하는 것**이다.

④ X: 글의 첫머리에서 절대적인 외모의 척도를 가정한 것은 그런 척도에 맞추면 잠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곧이어 척도가 바뀌거나 더 나은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설명하므로, 핵심은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자신감의 불안정성**이다. 객관적 기준이 생기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결론은 글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자신감과 불안의 완전한 해소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9. 윗글에서 ㉠과 ㉡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갑: 언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를 흔히 언어의 자의성이라 해. 자의적이란 임의적이라고 바꾸어도 좋은데, 어떤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내는 개념 사이의 관계가 ㉠이 아니고 우연적이라는 뜻이야.
을: 응 맞아. 그런데 언어의 소리와 의미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꼬끼오, 꼬꼬'와 영어의 'cock-a-doodle-doo' 등 의성어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유사성은 음성과 의미가 ㉡이지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야.
갑: 그렇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꼬끼오, 꼬꼬'와 'cock-a-doodle-doo'의 소리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야. 만약 한 단어의 의미와 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 결국 각 나라의 언어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자의적임을 더 증명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

① ㉠: 사회적, ㉡: 역사적
② ㉠: 인과적, ㉡: 분절적
③ ㉠: 필연적, ㉡: 역사적
④ ㉠: 필연적, ㉡: 자의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 '우연적'과 대립하므로 **필연적**이다. ㉡은 의성어가 실제 소리를 흉내 낸다는 점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완전히 임의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므로 **자의적**이다.

빈칸별 해설

㉠ 필연적: 언어의 자의성은 어떤 의미를 반드시 특정한 소리로 나타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성질이다. 갑은 이를 '㉠이 아니고 우연적'이라고 설명하므로, '우연적'과 대립하는 **'필연적'**이 들어간다. 사회적·인과적은 이 문맥에서 우연적과 대립하는 말이 아니다.

㉡ 자의적: 을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에서 소리의 유사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든다. 의성어는 실제 소리를 흉내 내므로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전적으로 임의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의적이지만은 아님'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적·분절적은 소리와 의미가 임의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갑은 같은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도 언어마다 표현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성격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에 '필연적', ㉡에 '자의적'을 넣은 짝은 ④이다.

NoteBase

문 20. 윗글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언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를 흔히 언어의 자의성이라 해. 자의적이란 임의적이라고 바꾸어도 좋은데, 어떤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내는 개념 사이의 관계가 ㉠이 아니고 우연적이라는 뜻이야.
을: 응 맞아. 그런데 언어의 소리와 의미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꼬끼오, 꼬꼬'와 영어의 'cock-a-doodle-doo' 등 의성어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유사성은 음성과 의미가 ㉡이지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야.
갑: 그렇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꼬끼오, 꼬꼬'와 'cock-a-doodle-doo'의 소리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야. 만약 한 단어의 의미와 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 결국 각 나라의 언어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자의적임을 더 증명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

① 갑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의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② 을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 언어가 가진 음운 체계의 필연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을은 의성어가 실제 소리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언어의 자의성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④ 갑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언어권마다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은 의성어와 실제 소리의 **유사성**을 근거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는 않다**고 말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가 다른 이유를 음운 체계의 필연적 차이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은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내는 개념 사이의 관계가 임의적이고 우연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어떤 의미를 반드시 특정한 소리로 나타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이므로, 선지는 갑이 설명한 언어의 자의성을 적절하게 풀이한 것이다.

② X: 을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차이의 원인을 음운 체계에서 찾지는 않는다. 을의 주장은 의성어가 실제 소리를 닮았으므로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의성어의 언어 간 차이를 자의성의 근거로 강조한 사람은 갑이다.

③ O: 을은 '꼬끼오, 꼬꼬'와 'cock-a-doodle-doo' 같은 의성어가 실제 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실제 소리를 닮은 표현에는 소리와 의미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모든 언어 표현에 자의성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을의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더라'는 말에서 이러한 **자의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O: 갑은 같은 닭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언어권마다 표현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들어, **의미가 특정 소리를 필연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자의성을 뒷받침한다.

NoteBase